

# 연꽃향기도 몰래 말지 말라

##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9>

△원문

또 세 가지 다른 사람의 귀중한 물건을 취하는 것이 있으니, 범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첫째 스스로 훔치는 것이고, 둘째 남을 시켜 훔치는 것이고, 셋째 사람을 보내 훔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훔친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고, '남을 시켜 훔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켜 남의 물건을 훔쳐서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며, '사람을 보내서 훔친다'는 것은 보낸 사람에겐 먼저 훔칠 물건이 있는 곳을 아느냐고 물어보고, 안다고 하면 보내서 가져 오도록 해서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다. 또 다섯 가지 다른 사람의 귀중한 물건을 훔치는 일이 있으니 범하면 참회할 수 없다.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훔치는 것이고, 둘째 가벼이 훔치는 것이고, 셋째 다른 사람의 이름을 칭하여 훔치는 것이고, 넷째 강제로 빼앗는 것이고, 다섯째 말았다가 갖는 것이다.

△강의

도둑질은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율장에서는 5전(錢) 이상의 값이 나가는 물건은 소유자의 허락없이 취하면 중죄(重罪)로서 참회할 수 없다 하였다.

## 오계상경-13

〈무량수경〉에 16라한 가운데 한 분으로서 계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해탈제일 교범바제 존자의 본생담이 전해지고 있다. 교범바제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공양을 하고 나면 소가 새 김질을 하듯 계속 트림을 하며 음식을 다시 씹어서 삼키곤 했다. 보다 못한 비구들이 주의를 주었으나 고쳐지지 않으므로 부처님께 여쭙더니, 교범바제의 본생을 말씀해 주셨다. 교범바제는 과거세에 비구였는데 결식을

허러 가는 길에 조밭에서 조 한 이삭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탐스럽게 영근 것을 살펴본 뒤에 바로 놓아 두었다. 그러는 중에 몇 알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남의 조를 허락없이 함부로 떨어뜨린 과보로 5백세 동안 소가 되어 그 빛을 다 갚았다. 그 뒤에 사람의 몸을 받았으나 5백세 동안의 소의 습이 남아 있어 소의 새김질과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하

히 회심하는 일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서 향가를 훔쳐가는 도둑이 되었는가? 비구가 놀라서 말했다. "연못을 허물거나 빼앗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나를 도둑이라고 하는가?" 연못 신이 말했다. "구하지 않고 가졌으면서도 어찌 도둑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이때 마침 숙인 한 사람이 오더니 연못에 들어가 꽃을 꺾고 뿌리를 파내고 있었다. 그 모양을 보고

기에 집착하니 그대의 선을 닦는 좋은 일을 깨뜨리는 결과가 된다. 올바른 수행자의 털끝만큼의 작은 허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태산처럼 크게 여기나니, 그대는 항상 청정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비구는 연못 신의 말을 듣고 오로지 좌선에 전념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아라한과를 얻었다.

여기서는 연못에 핀 연꽃의 향기를 함부로 맡으며 집착하는 것도 훔치는 것이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율장에서는 도박을 하다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패를 바꾸어 5천 이상을 따거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여행할 때에 차비를 내지 않는 것도 모두 훔치는 행위가 되므로 참회할 수 없는 중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는 삼악도의 고통을 받고, 이 업보가 다하여 다시 사람이 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는다. 첫째는 빈궁에서 못으로 몸을 가리지 못하고 음식으로 배를 채우지 못하며, 둘째는 물·불·왕·나쁜 도적의 겁탈을 받아서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결국 훔치는 행위는 자신의 복덕의 종자를 끊는 것이므로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다음생에 축생의 가족을 쓰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 "화합의 오월 민주정신 남북통일로 이어지길"

밝고 텅비어 한점 결림없이 한 번 몸을 던지니 얼마나 자유롭소. 그대 영령들이 가신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때 그 함성은 추모의 대서사시로 이어지고 금남로에 펼쳐이던 그 깃발은 여기 이렇게 추모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영전에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 한달 후면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7천만 민족의 영원한 통일은 이 시대 우리의 역할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 날의 벼를 허물어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이 민족의 화두입니다.

태어남도 태어남이 아니고 죽어도 죽음이 아니며, 있지 아니하고도 있고, 없지 아니하고도 없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모습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 영원히 살아있는 영령들의 정신, 5월의 정신은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5월의 정신이 살아있으므로 영령들이 사는 것이며, 우리들의 정신이 죽으면 또한 그대들도 죽는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가장 값진 터전을 일구어 왔으니 그것이 '5월의 민주주의'입니다. 영령들의 대승적 삶이 질곡된 역사의 물고기를 터놓고 가셨습니까?

서로 가슴 열고 용서하여 지역감정 빈부격차 없고 고통없는 불국토 만드자

우리는 상생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벗어놓고 서로 서로 가슴 열고 용서할 것입니다.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화합하여 지난 원결(怨結)을 풀어야 합니다. 생각과 행위를 허공에서 떨어는 허환(虛幻)입니다. 이 허환한 현상에 너무 집착하면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영령들이여! 지금 시대는 각기 떠나고 영식(靈識)만 홀로 들어났소. 영지(靈智)는 거래에 관계없이 사방 세계에 노니나 자취가 끊어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대승적 삶을 살다 간 5월 영령이시여, 날 때는 한가닥 맑은 바람이 일어나는 것 같고 멀할 때는 맑은 못에 달 그믐자 잠기듯 하니 생각하고 오고 가는 데 결림없으니 오월의 영령은 어느 곳에 머무는가.

세존께서 한 송이 꽃 상근기(上根機)에 보이시니 금빛 두타 빙그레 미소짓고 달마는 면벽한 채 날 카로운 상근기 맞으니, 팔 끊는 신광(神光)은 눈 속에서 서 있습니다. 5월의 영령은 이 또한 어떨 것인가? 5월의 무등산에 해가 더욱 솟아오르고 망월동산의 영전에는 꽃이 가득하구나.

정리=주몽적 광주지사장

## 법회증계

5·18 영령천도제 (2000년 5월 17일)



성호선님 <관음암 주지>

# 불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뿌리

전 세계적으로 언어·문화·예술·철학·정치·사회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스며들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이 사상의 중심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셀 푸코, 자크 데리다 등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이 새로운 사유의 틀로서 선택한 동양, 특히 불교사상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우주 중심으로서의 신(神), 세계 중심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사유와 행동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는 중심으로서의 진리, 그리고 인간의 삶을 포괄하여 우주 내외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현상들을 설명하여 주는 영구불변의 틀로서 구조 같은 것들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런 것들이 영구불변의 자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같은 중심들이 허구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 세계의 불교학 <19> 프랑스 ②

상으로 서구 문화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의 저서 중에서 1968년에 출판된 텍스트들은 불교와 나그르주나의 공(空)사상 체계와 유사한 국면들을 보여준다.

포 데리다는 자신의 철학과 불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첫째 부지(독성이 강한 한약재)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음이 약이면서 독이기도 한 파르마콘(pharmakon)에 대한 데리다의 사유는 불교적인 논리를 보여준다. 참/거짓, 선/악, 본질/가상 등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파르마콘은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에 나타나는 색(色)과 공(空)의 동거 그 자체다. 둘째, 파르마콘은 상호 이질적인 것을 수용해 '차이'를 형성하고, 그 차이가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 내는데,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수용하고 차이짓기를 하는 것은

불교의 연기사상과 다를 바 없다. 이 같은 지적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불교의 핵심 교의인 연기설과 불이불(不二) 사상과 접목시킬 수 있게 해 주는 소중한 통찰이다. 이와 같이 불교 사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을 들여다보려는 프랑스 학자들의 시도들은 대

## 미셀푸코·데리다 등 쏘사상 심취 탈중심적 사유 연기사상과 접목

체로 나그르주나의 사상과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데리다의 사상에 대해 불교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로버트 매그리올라는 그의 저서 <수리 중인 데리다>(1984)에서 "현대인은 데리다 없이 나그르주나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나그르주나는 데리다의 선구이고, 불교는 포스트모더니즘 현상



◇이회 대중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 불자들.

을 제공하는 푸코의 계보학, 데리다의 해체철학의 핵심인 텍스트 이론, 그리고 포스트구조주의와 해체론의 집중적 공격 표적이 되고 있는 관념론 철학에서 제기되고 있는 진리의 일관성 이론과 사실들의 상호의존 이론에 나타나는 연기론적 국면들과 이들이 가지는 포스트모던적 의미에 대한 탐구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로 연기설을 통해 얻어지는 공(空) 사상은 탈중심적, 탈자성적 포스트모더니즘 사상들의 진정한 요체가 아닐까.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5기 佛敎儀式(범음·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이안 및 통산성)

·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다루는법, 도량석 쇠술,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법반(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신행과정(6개월)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00년 6월 5일까지  
 ◆개강일시: 2000년 6월 5일 오후 5시 정각  
 ◆제출서류: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2000년 제1기 灌摩禪法 자감(自感) 영통법사 교육 (전국지역지부회 모집)

道理는 相生이며 道術은 畝畝이니 達磨禪法으로 도를 覺하고 五行變化로 도리를 究하며 千手觀音으로 도술을 得함이 三修修行이라 古往今來 병을 물리치고 마귀를 쫓으며 화를 피하고 복을 부르는 法을 수행의 요체라 하니 살아 움직이는 말마선법의 버락 같은 비법을 전수코져 함이라 白常 禪師

【특점】

- 연수 및 분기별 교육예정
- 각 과정 수료시 지도법사 자격증 수여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해의 법사 위촉 및 해외 활동지원
- 각 지역 지부장 위촉 교육지도 할수 있음
- 본연합 연대사업 적극 지원
- 장묘문화(화장, 납골) 사업
- 민박·세계관광 연대 사업
- 각종 사찰 봉사사업 지원

【배우지역】

CIOI 중국(장백, 연길) JIOI 일본(도쿄, 하카다)CAIOI 캐나다(알버타)  
 【국내지부회(재모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인천, 춘천, 진주, 울산, 마산, 포항, 경주, 청주, 대도시 및 소도시

◆접수방법: 이력서(사진첨부), 간단한 자기소개서 우편접수 및 팩스로 접수 하여야함

◆기간: 2000 수시 접수 가능함 (1차 2000.6.20까지)

◆1차교육수료비: 30만원

◆계좌번호: 농협 150042-52-200478 예금주 이 민택

※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육 수료비, 입급표 접수한 분에 한하여 면접 상담 후 지역 지부장으로 추대코져함

세계 상생운동연합 부설 달미선법 세계원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13-1(2층)  
 전화 053)982-4976 팩스 053)983-9223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인진숙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인진숙 엑기스는?

야생(참)인진숙 자연산(固液)은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덩이 속에서 피어난 꽃과 열매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숙을 말합니다. 구성복지원 임명숙님은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에서 자라는 야생(참)인진숙(高養山)을 원동탄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삼)등 8종의 약초를 기미해 보사부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호)를 받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주종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량섭취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숙과는 다릅니다.  
 공무가격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7강중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임과 불침방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전신·홍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떡, 편질·골다공증·골염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십시오.

순수익의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혜집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6. 정력 회복에 좋습니다.
2. 항상 피로한 사람	7. 생리통, 생리불순
3. 위장이 나쁜사람	8. 냉대하, 신경통
4. 변비가 있는 사람	9. 당뇨, 혈당
5. 고혈압, 저혈압	10. 불면증 입원환자

※ 남은 야생(참)인진숙은 곳에서 광도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주 문 직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www.yasenginjinssook.co.kr